

“지 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나무망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무슨 재판이냐구요? 효성동 화재 사건에 대한 불의 재판입니다.

“검사님께서 재판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면서, 재판소 안은 쥐죽은듯 했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보람농장에서 지난 4월13일 오후 1시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엄청난 재산 피해로 많은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먼저,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잃은 동네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은 애써 모은 재산을 2시간동안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가구 공장, 화원, 고물상 등을 송두리채 태워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이들의 책까지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피해자의 말을 듣던 동네 사람들이 ‘옹소’라고 소리치르며 떠들어댔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소 안을 정리하고는 “그럼 다음으로 죄를 지은 불의 말을 들어 봅시다.”

재판장이 앉자마자 불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잘못이 더 큼니다. 왜냐하면, 가구공장 아저씨가 나를 구박했거든요. 나는 신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나를 보면 태워버려야 속이 풀립니다. 그런데 나를 신나통 안으로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만있었겠어요?

나도 좋은 불입니다. 내가 촛불일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해 주는지 고마워서 어두운 방을 밝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걸요. 그리고 부엌에서는 밥을 짓고 반찬을 익혀서 사랑을 받았고요.



사람들의 잘못은 또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넓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내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길 넓었다면 빨리 소방차가 들어와 피해는 줄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의 성질을 알고도 알보기 때문에 내가 화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절대로 해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사람이 안 죽었다니 안심입니다. 잘 피해 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하면서

불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농장 사람들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청년 한 명이 뛰쳐나와 재판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화재 사건의 범인은 불이 아니라, 저입니다. 제가 불을 잘못 사용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하며 흐느꼈습니다.

재판장은 불과 청년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을 내려야 할텐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드디어, 망치를 들고는 “지난 번 효성동 보람농장의 화재 사건에서 불은 잘못이 없습니다. 불은 무죄입니다.”하면서 팡! 팡! 팡! 세번을 내리쳤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머리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습니다.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불을 잘 다루시다’라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재판에서 불한테 졌지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불을 위하고 아끼는 동네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안화지에 있는 영화농장으로 배를 사러 가면서 둘러보니까 집들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길도 넓어졌습니다. 불장난하는 아이들도 없었고, 길을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일기를 쓰면서, 불조심은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